

# 北方派 詩와 放浪의 正體

오 양 호\*

## < 목 차 >

- I. 문제의 제기
- II. 布衣轉轉 호적없는 시인
- III. 북방과 시에 나타나는 放浪의 성향의 지속과 변화
- IV. 流浪과 放浪, 그 北方指向 정서의 正體

## <Abstract>

### The Study on a Bukbangpa(北方派)

Oh yang ho

Seol-Joo lee was a poet who led the DaeGu(大邱) Poet Group at time of the liberation from Japan in the 1950s. His poems such as 'Wild Chrysanthemum(1947)'(들국화), 'A Torchlight(1947)'(炬火) and 'Bohemian Poetry(1948)'(放浪記) inspired the group to greater efforts with their mixed feelings of sorrow and regret(unique to Koreans). He assumed a critical attitude towards the sense of national homogeneity in Korea With a mood of mourning and doom.

His poems have become unique works of literature that deserve to be supported historically, when we want to research the early Korean poetry world of 1950s

Therefore we must consider him as a representative of the early poet

---

\* 인천대학교 교수

group and we should recognize his achievements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Mr. Lee's poems have some peculiarities of bohemian temperament, nihilism and the tender passion of pathos.

We have to consider Korean national pathos to understand his poems completely.

## I. 문제의 제기

향수鄉愁·노스텔지어Nostalgia는 문학을 형성하는 하나의 본질이다. 굳이 현학적인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문학이 고향으로 가는 길임은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여러 작품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육사가 ‘내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한 절창, 윤동주와 『별헤는 밤』의 고향 간도, 백석과 그의 고향 정주, 김영랑과 전라도 고향 사투리, 전봉건과 북쪽의 고향 등 그 예는 허다하다. 시만 이러한 것이 아니다. 이효석이 『메밀꽃 필 무렵』에서 아름다운 달밤 산길 풍경을 그렇게 정확히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작품의 배경이 자신의 고향이었기에 가능했고, 조정래가 ■■■태백산맥■■■에서 감칠맛 나는 전라도 사투리를 탁월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것 역시 그가 별교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문구의 ■■■관촌수필■■■의 유려한 문체 또한 그의 고향에 기대고 있다. 이와 같이 문학작품들은 모두 ‘고향을 향한, 고향으로 가는 길’이다.

일제강점기, 특히 1930년대 말기로 오면 이러한 향수는 외방지향外邦指向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은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고 외치고 있다. 이것은 서정주가 ‘계집애야 계집애야/ 고향에 살지// 멍 둘레 꽃피는/ 고향에 살지// 질갱이 풀 뜯어/ 신 삼어 신고// 시누대발 머리에서/ 먼 산 아래고// 서러워도/ 고향에 살지’라는 포에지와 반대이다. 강박관념에 쫓기듯 이 시의 서정적 자아는 고향으로부터 탈출을 기도하고 있다.

1930년대 말에 오면 이런 이향離鄉의 시가 집단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오장환, 이용악, 유치환, 이찬, 백석, 박팔양, 이서해, 이설주 등이 대표적 시인이다. 필자는 이런 일군의 시인들을 북방과北方派라 칭한 바 있다.<sup>1)</sup>

이용악은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북어쫓가리 초담배 밀가루 떡이랑/ 나눠서 요기하며 내사 서울이 그리워/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간다’(『하나씩의 별』, 1945)며 서정적 자아를 내쫓았고, 이찬도 ‘이역천리 저 북만주 가구야 말려느냐/ 아 잡아보자 네 손길 이 게 마지막이나/ 이리도 살뜰한 널 내 어이 여회는가’(『북만주로 가는 월이』, 1937)라며 이향의 슬픈 정황을 서사화했다.

이런 문학적 현상에 대한 해석 중에는 당시의 정치 사회적 문제와 관련시켜 만주 이민사 제3단계인 정책이민시대에 나타난 현상으로 접근하려는 시각<sup>2)</sup>과 만주국에 부응한 그러한 친일적 성격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탱할 절대절명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이룩된 생존문학<sup>3)</sup>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일단의 문학을 이민문학移民文學으로 규정하고 이런 문학에 내재한 망명적 성향과 궁핍의 땅을 탈출하여 새로운 고향을 건설하려는 민족생존의 전략으로 해석했고<sup>4)</sup>, 이 논리를 수정 보완해 오고 있다.<sup>5)</sup>

사정이 이러하지만 북방과 시인들 중에는 노스텔지어가 시종일관 외방지향성으로만 나타나는 시인이 있다. 향수의 외방지향 그것은 곧 방랑放浪이다. 이 글이 집중적으로 고찰하려는 이설주李雪舟의 북방시가 그러하다. 여기서는 이설주의 ■■■들국화■■■<sup>6)</sup> ■■■방랑기放浪記■■■<sup>7)</sup> 두 시집을 통해 북방과에 두

1) 오양호, ■■■일제강점기 만주조선인문학연구■■■(문예출판사, 1996) 참조.

2) 윤영천의 한국의 유이민 시의 성격에 대한 해석.

3) 大村益夫의 ■■■윤동주와 한국문학■■■(소명출판, 2001)에서 구만주국 한인문학을 그렇게 설명했다.

4) 오양호, 『移民文學論』(영남어문학 3집, 1976). 이 논문은 국어국문학회편 국문학연구총서⑩(정음사, 1982)에 같은 제목으로 재수록되었다.

5) 1988년에 출판된 ■■■한국문학과 간도■■■(문예출판사), 1996년에 출판된 ■■■일제강점기 만주조선인문학연구■■■(문예출판사).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마도강 문학 연구』 등이 모두 이러한 시각이다.

6) ■■■들국화■■■(民鼓社, 1947, 大邱).

루 나타나는 향수의 외방지향·방랑의 성격을 고찰하고, 이설주 시의 정체를 탐색하려 한다.

## II. 布衣轉轉 호적없는 시인

시인 이설주는 대구에서 태어나(1908, 본명 龍壽) 수창국민학교, 대구고보를 졸업하고(1927) 일본에 유학 니혼대학日本大學 경제과에 다니던 중 1931년 5월 1일, 메이테이에 붉은 뼈라를 뿌리려다가 체포되는 등 고학으로 학업을 수료하고 귀향한 후 1947년부터 1951년까지 대구여상(현재 제일여중), 경북여고에 국어교사로 공직생활을 한 5년 간을 제외하고는 시 쓰기만으로 세수 93세를 누린 시인이다.<sup>8)</sup> 그는 대구고보 3학년 때 족형族兄인 이상화의 시를 읽고 ‘문학에 대한 의욕이 맹렬히 용솟음치게 되어’ 시인의 길로 들어섰고<sup>9)</sup>, 시인으로서의 데뷔는 1932년 동경에서 『고소古巢』를 발표하면서부터이다.<sup>10)</sup>

오오제기 고로大關五郎가 주재하는 민요를 중심으로 한 순시지純詩誌 ■■■ 신일본민요新日本民謠■■■, 1932년 8월호에 수록된 『고소』는 망국민의 설움을 문제삼는 현실참여적 성격을 띠고 있다.

### 古巢

レモン花咲く南國の  
こぞ(去年)に別れしまらうどよ  
軒の古巢が戀しさに  
燕の鳥は巢に歸る

椿花咲くあの丘で  
泣いて別れしまらうどよ

7) ■■■放浪記■■■(啓蒙社, 1948, 大邱).

8) 타계한 날은 2001년 4월 20일.

9) 이설주, 自傳的 詩話集 ■■■文學的 鄉愁■■■(甲寅出版社, 1999), p.24.

10) 이설주, 같은 책, p.67.

棄てた夢ゆゑ戀しいと  
ふたたびわれと嘆かぬか

옛 보금자리

레몬꽃 피는 남국의  
작년에 헤어진 나그네여  
처마 밑의 옛 보금자리가 그리워  
제비는 보금자리로 돌아가네

동백꽃 피는 저 언덕에서  
울며 헤어진 나그네여  
던져버린 꿈이기에 그림구나  
다시금 스스로 한탄하지 않으리

여기서 ‘고소’는 고향, 고국이라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레몬꽃 피는 남국과 동백꽃 피는 언덕은 고국산천이요, 마로도(まろうど)는 제비 또는 나그네를 지칭하는 말이니 빼앗긴 나라를 떠난 서정적 자아가 언제 고향에 돌아갈가를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에 그러하다.

이 시인은 1947년 ■■■들국화■■■를 상제한 이후 평생동안 27권의 시집을 출판했다.<sup>11)</sup> 시력이 자그마치 60년을 넘으니 그럴만하다. 아마 이런 이력은 우리 문학사상 그 예가 없을 것이다. 시력이 한 인간의 자연수명만큼 길다. 그런데 한국의 어떤 문학사도 이 시인에 대해서는 한 행의 언급도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시인의 시력을 면밀히 살펴보면 몇 개의 특징이 나타난다. 이 문제가 아마 이런 문학사 기술과 관련될 듯하다.

첫째 이 시인은 포의전전하며 다작을 한 시인이다. 둘째 어떤 문학단체에도

11) 따님 시조시인 이일향李一香은 40여권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34권이라 증언했다. 그러나 필자의 자료조사에서는 27권으로 나타났다. 많은 시집을 내면서 미처 정리를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인 스스로도 체계적인 정리를 미뤄 두었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일 듯하다.

관여하지 않았고, 문인들과의 교류도 없었던 지방시인이다. 즉 시에 바치는 순연한 작가정신만으로 문단외곽에서 활동했다.<sup>12)</sup>

첫째문제부터 살펴보자. 이설주의 첫 시집 ■■■들국화■■■가 1947년에 출간되고 같은 해 ■■■세기의 거화世紀의 巨火■■■가 나왔다. ■■■방랑기■■■는 이듬해 9월에 간행되었다. 그리고 ■■■방랑기■■■ 말미에 이런 광고가 있다.

李雪舟詩集

第一集 ■■■들국화■■■(絶版)

第二集 ■■■放浪記■■■(既刊)

第三集 ■■■漢江■■■(近刊)

第四集 ■■■胡蝶■■■(未刊)

第五集 ■■■洪水■■■(未刊)

그러나 제3, 제4, 제5 시집은 계획만 하고 간행은 되지 않은 듯하다.

■■■들국화■■■ 이후 1947년 9월까지 시는 따로 모아 이미 시집 ■■■한강■■■이 준비되어 이보다 1년 먼저 나오게 된 것이 여지껏 햇볕을 못보고 있고 1947년 10월에서 1948년 8월까지의 노래는 제5집 ■■■홍수■■■로서 세상에 나올 날이 멀지 않아 있을 테니...<sup>13)</sup>

사정이 이러하지만 1949년 시집 ■■■잠자리■■■가 나왔다. 해방직후의 혼란기에 개인시집을 이렇게 3년 연속 4권을 출판한 시인은 없다. 대단히 왕성한 활동이다. 해방전 작품이 중심이 된 ■■■들국화■■■와 ■■■방랑기■■■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신기하게 금방 팔려나간 것에<sup>14)</sup> 자신을 얻어서인지 그 후 이설주는 6·25전쟁기에 ■■■미륵■■■(1952) ■■■유수곡流水曲■■■(1953)도 출판하였다. 그런가하면 1953년 ■■■연간시집年刊詩集■■■을 김용호

12) 경북여고 국어교사 시절 이설주의 별명은 ‘자부래비’였다고 한다. 늘 시상에 잠겨 자는 듯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이다.(경북여고 출신 따님 이일향의 회고)

13) 이설주, ■■■방랑기■■■ ‘序’. 이 序는 1948년 8월 5일에 쓴 것으로 날짜가 밝혀져 있다.

14) 이설주, ■■■문학적 향수■■■, p.140.

金容浩 시인과 공편했고, 1954년 ■■■연간시집■■■은 유치환과 공편하였으며 ■■■현대시인선집■■■(상,하)을 1954년 김용호와 함께 간행하였다.

이설주의 이런 활동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편집기획자로서의 활동이고, 둘째는 작품이 생산되기까지 걸리게 되는 절대시간, 즉 시적인 사색, 탐색, 압축, 퇴고의 과정이 아주 짧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을까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결국 많은 시를 짧은 기간에 발표함으로써 문학적 성취도가 문단에 부정적으로 과급되었다.

한편 시인 이설주는 애초부터 자신은 포의전전하는 방랑시인으로 규정하였다. 우선 용수龍壽라는 본명을 설주雪舟라고 고치고 평생 이 필명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창씨개명한 이름은 북리모연北里暮煙이다. 이런 이름에 대해 시인 자신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 바 있다.

이 무렵에 내 이름號은 기다사토보엔北里暮煙이다. 북망같은 그늘진 마을에 한오리 실날같이 오르는 서럽고 가난한 저녁 연기라는 뜻으로 이것도 내 땀에는 약소민족의 상징이라 하겠다.

아호는 대개 선배님이나 친구들이 지어주는데 나는 원래 산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山자와 水자로 호를 지으려니 지자요수 인자요산知者樂水 仁者樂山이라는 성현의 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너무 대견하고 근사한 걸 고른다는 것이 문득 “千山鳥飛絕 萬徑人從滅 孤舟簑立翁 獨釣寒江雪”이라는 시귀가 생각이 나서 설주雪舟라고 했다.<sup>15)</sup>

그러니까 설주雪舟라는 필명은 시인 자신이 자기는 ‘눈 내린 강가에 홀로 떠 있는 외로운 배’라는 뜻으로 지은 자작명이다. 북리모연北里暮煙이란 호 또한 비장한 허무주의, 방랑적 기질이 내포되어 있다. 벌써 이 이름에서부터 북방北方으로의 긴 여행이 암시되어 있다. 왜 하필 ‘북리’인가. 이렇게 보면 이 시인에게 있어서의 방랑, 그것도 북방지역으로의 방랑은 생래적 운명이었던 것 같다.

이설주의 방랑은 동경유학시절에 사상범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후 대학

15) 이설주, ■■■문학적 향수■■■, p.52.

을 중퇴해야 했던 사정과 어릴 때부터 받았던 후데이센징不逞鮮人<sup>16</sup>으로 대접받아야 했던 약소민족의 설움이 자신을 방랑시인으로 내몰았다는 말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 중 이런 사실을 가장 확실히 밝힌 것이 자전적 시화집이다.

① 동경 경시청에는 내 앞 가슴에 <이용수>라는 패를 달고 찍은 요시찰인물要視察人物의 사진이 묵은 창고 어느 한 구석에 해방 전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보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중략)...

고향엘 오니 무슨 거물이나 되는 것처럼 대구역에는 벌써 아무것도 아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좀 매를 맞는다 뿐이지 엔간해서 심한 고문은 안한다. 그런데 동족이면서 어찌면 그렇게도 포악하고 잔인할 수가 있단 말인가. 아뭏든 몇 번을 까무라쳤으니까, 20여일 만에 집에 나와서 그대로 드러누워 모두 죽는다고 했으니 지금은 덤으로 사는 셈이다. 이때 내 담당은 고등계 형사 김의동金宜東이었다. 그 녀석은 잘 두들기면 훈장이라도 받는지

...(중략)...

황막한 벌판에서 백설이 흩날리고 때로는 황포강黃浦江 저문 날을 표표히 떠다니며 서러운 조국의 하늘 한 자락에 부치는 노래로 마음을 달래곤 했다.<sup>16)</sup>

② 내가 문학詩을 하게된 시초의 원인은 보통학교壽昌 4학년 때 일이다. 4년간을 정근精勤에 성적도 우등생이었기 때문에 담임 선생에게 여간 총애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는 너무 심한 장난을 하다가 교무실에 불려가서 호되게 꾸지람을 듣는 판인데 선생도 몹시 골이 났는지 나가하면서 뒤에다 대고 “조센징와 시요가 나이—조선인중은 할 수 없단말야” 내뱉듯이 역정이 나는 말투로 쏘아 붙였다.

이 말이 어린 마음에도 뼈에 사무치도록 서러웠다. 어리다 해도 그 때는 이미 중학교를 졸업할 나이였으니까.

내가 공부도 잘 해, 또 그렇게 귀여워하면서도 저런 욕을 하는 것은 역시 선생이라도 일본인은 우리를 업신여기는구나 싶어서 그만 성격性格이 나도 모르

16) 이설주, 같은 책, p.76.

는 사이에 어둡고 우울해지고 말았다. 아마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모양이다.

4년을 수료하고 고보에 들어가서도 짙은 그림자가 전신을 내리덮어 어슴푸레 하게나마 약소민족이라는 비애가 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책을 읽게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한 원인遠因도 있겠지만 보다 더 상화尙火 형님에게 음으로 양으로 받은 영향影響이 실로 절대적이라고 하겠다.<sup>17)</sup>

이상 ①② 인용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①에서는 고등계 형사 김의동, 그리고 인용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자기를 더 약질적으로 고몬한 이동춘李東春이라는 자의 성명도 명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 후 하나는 병사하고 하나는 낙마하여 죽었다는 사실까지 밝히고 있다. 인용 ②는 ‘조센징 시요가 나이’라던 선생의 말, 그것도 자기를 우등생이라며 아주 자랑스러워하던 선생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받았던 배신감의 토로이다. 약소민족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시대의 서러움이 선명히 드러난다. 이런 것들이 감수성이 강하고 수재로 이름난 이 문학 소년을 자조와 자학적 행동으로 내몬 중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설주가 초등학교 4학년을 수료하고 경북중학(대구고보)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수재로 그 이름이 신문에 날만큼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그를 알고 있는 몇몇 동창들이 증언했다.

『자화상』 『황하일모黃河日暮』 『암록강鴨綠江』 등의 작품에 이설주의 이런 시의식이 잘 드러난다.

키가 커서 훗씬  
班馬같이 슬펐으며

마음이 여린 탓에  
거미줄이다

때로는 구름위로  
한사 솟으려다

17) 이설주, ■■■문학적 향수■■■, pp.21-22.

눈물을 바다만큼이나  
세월의 아픔을 산만큼이나.

『자화상』에서

호궁이 우는 강나루  
젖빛 향수에 젖어  
늘 비긴 돛폭이 줄며간다

白鳥가 떼를 지어 날아오면  
고기잡이 돌아서는  
붉은 황토물

뱃노래 쉬어쉬어 늙은 사공아  
상기도 물길은 구름 천리가

『황하일모』 전문

둘째 문제는 첫째 문제보다 이 시인의 이름을 문학사에서 배제시키는 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다작은 곧 범작이다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작을 해야 수작이 생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을 획득하고 있는 논리이다. 그리고 이 시인이 1948년 전후 4권의 시집을 상재할 수 있었던 것은 1932년 등단이후 창작된 작품이 많았기에 이뤄진 성과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초기의 작품까지 다작의 소산으로 볼 수는 없다. 그의 방랑생활이 10년을 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이설주의 시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은 이유는 문단의 누구와도 교우하지 않는 자존심과, 자신이 시창작에 들어선 자부심이 남달랐던 동기에 있는 것이라고 봐야한다. 이 문제에 대해 시인 자신은 이렇게 술회했다.

해방 전까지는 방랑생활로 문단과는 전혀 인연이 없었는데 해방직후 한 번, <영남일보>에 『순이의 가족』이라는 시 한 편을 보냈다. 물론 아는 사람이라고

는 아무도 없고 그저 보내본 것이다.  
 열흘, 스무날, 한 달이 지나도 영 감감 소식이 아닌가.  
 …(중략)…

그래서 나는 치사하고 째째해서 아예 작품을 발표 안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또 한 번은 서울에 와서 민성사民聲社에 간 일이 있었다. 박영준씨가 『민성』을 편집하고 있을 땐데 영준씨는 나를 기억하는지 몰라도 내가 만주 반석에 있을 무렵 그도 이곳 모처에 근무하고 있어서…(중략)…하여간 시 두 편을 주고 왔다. 이것도 앞에 말한 <영남일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중략)…

그후부터 문단이란 아주 영토가 좁고 너무 웅졸하고 인색한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인가보다 짐작하고 일체 그들과 교제를 안 했다.  
 대구에도 이운수, 이호우, 박목월이 하는 <죽순竹筍>이란 동인지를 비롯 『무궁화』 『건국공론』 같은 몇몇 종합지가 있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도대체 문학을 한다는 족속들의 꼴도 보기가 싫었다. 지금도 시단은 줄을 쳐놓고 인정도 아랑도 없는 메마른 그런데가 아닐런지 모르겠다.<sup>18)</sup>

이 인용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몇 기 있다. 첫째 무대가 지방이다. 둘째 작품으로 승부를 봐야하는 프로세계, 그것을 이설주 특유의 문학적 정열로서 풀어가려 했다. 셋째 자신의 작품을 문단의 추천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본시단의 경력만으로 자천함으로써 그 집단 진입이 어렵게 되었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이 시인은 생전에 많은 시집을 출판했다. 이런 점은 아마 이 시인이 대구의 토호집안의 사위가 되었고,<sup>19)</sup> 대구고보를 나와 일본 유학, 대구의 명문 경북여고에서 교편을 잡았고, 일찍이 민고사民鼓社와 같은 출판사에 관여했고, 대구에서 제일 큰 서점인 문화서점을 그의 부인이 경영하여 크게 성공했던 사정 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민고사’라는 이름은 이제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지만 ‘민고民鼓’라는 말이 뜻하는 의미와 이설주의 최초의

18) 이설주, 같은 책, pp.135-139.  
 19) 이설주의 부인 서귀희徐貴會는 남편보다 2년 연상이다. 이설주의 장인은 대구의 토호 달성 서씨(대구 서씨)의 종가택인데, 이설주가 신문에 그 이름이 날만큼 수재라는 소문(국민학교 4년 수료하고 수재들이 가는 경북중학에 입학)을 듣고 결혼을 시켰다고 따님 이일향이 증언했다.

시집이 ‘백성들이 울리는 북소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사실은 이런 시인의 태도와 잘 호응된다. 이런 조건이 이 시인을 애초부터 홀로 설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언급은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문학연구를 작가의 자전적 해설에 따르는 것은 문학연구의 객관성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른바 의도의 오류 Intentional fallacy이다. 이런 점을 뛰어넘기 위해 다음 두 장이 준비되었다.

### Ⅲ. 북방과 시에 나타나는 放浪의 성향의 지속과 변화

우리는 유치환을 의지의 시인이라고 규정하는 문학사의 기술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그의 북만체험의 시편들이 거의 이런 관점에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지로 무장된 청마에게도 다음과 같은 북만체험의 부드러운 서정시가 있다.

아아 나는 예까지 내쳐 왔구나  
北滿州도 풀 깊고 꿈 깊은  
허구한 세월을 가도가도 인기척 드문 여기  
여기만의 의로운 세상의 복된 태양인양 아낌없는 햇빛에  
바람 절로 빛나고 절로 구름 흐르고  
종일 두고 우젓고 사는 벌레소리 새소리에  
웃티 벗어 팔에 끼고 아아 나는 드디어 예까지 왔구나

시집 ■■■생명의 서■■■(1947)에 수록된 『새에게』의 한 연이다. 일제강점기 만주체험이 중심이 된 이 시집에는 시집명이 된 『생명의 서』를 비롯하여 『절명지』 『음수』 『노한산』 등의 엄혹한 현실과의 대결의지가 전권을 압도한다.

그러나 『새에게』는 방랑적 성향, 보헤미안적 기질이 독자를 위무한다. 이 시를 지배하는 이미지는 밝고 가벼우며 서정적 자아가 엄혹한 현실에서 일탈하는 모습과 북만주가 꿈이 깊다며 웃저고리 벗어 팔에 걸고 ‘복된 태양’ 아래 유쾌하게 나들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설주의 방랑시와 모티프가 동일하

다.

청마까지도 이와 같이 견고한 의지에서 벗어나고, 해방전의 이설주에게는 전부였던 이 외방지향의 향수 문제가 우리 시에 넘나들기 시작한 것은 사실 한국 현대시의 형성기라 할 수 있는 1920년대 중기부터이다. 파인 김동환의 한만국경지대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시 세계가 바로 이런 모티프의 발단이다. 일찍이 김억이 ‘로맨틱한 서사시’라고 평한 바 있는 김동환의 시는 출발부터 그 시의식이 외방지향의 방랑적 성격에 가 있었다. 파인의 등단작 『赤星을 손가락질하며』를 보자.

北國에는 날마다 밤마다 눈이오느니  
灰色하늘 속으로 눈이 퍼부של 때마다  
눈속에 파묻기는 하연 北朝鮮이 보이느니

가꿈가다가도 당나귀 울리는 눈보라가  
漠北江 건너로 굶은 모래를 쥐여다가  
추움에 어엿하는 白衣人의 귀뿔을 때리느니

춤길래 멀리서 오신 손님을  
부득이 만류도 못하느니  
봄이라고 개나리꽃 보러온 손님을  
눈발귀에 실어 곱게 남국에 돌려 보내느니  
白熊이울고 北狼星이 눈깜박일 때마다  
제비 가는곳 그립어하는 우리네는  
서로 부둥켜 안고 赤星을 손가락질하며 氷原벌에서 춤추느니—

모닥불에 비치는 異邦人의 새파란 눈알을 보면서  
北國은 춥어라, 이 치운 밤에도  
江 녀에는 密輸入馬車의 지나는 소리 들리느니  
어름뿔 깔리는 소리에 쇠방울 소리 잠겨지면서

오호, 흰눈이 내리느니, 보—얀 흰눈이

北塞으로 가는 移徙꾼 짐작우에  
말없이 함박눈이 잘도 내리느니

『적성을 손가락질하며』

이 시는 1924년 3월 10일 ‘어두만강畔於豆滿江畔’에서라는 주註를 달고 ■■■ 금성金星■■■ 3호에 발표되었던 파인의 시단 데뷔작이다. 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파인의 야심은 당시 황량한 국경 지대로 유랑의 길을 떠나야 했던 민족적 비극의 현장으로 시선을 돌린 데에 시사적 의의가 있고, 또 그렇게 뿌리뽑혀나는 자의 한계 상황을 형상화했다는 점 역시 의의를 지닌다. 민족적 비극을 상징하는 ‘북국北國’이라는 이미지에서 파인이 보여주는 정신적 경험이 낭만적 성정의 노출 현상을 보여주듯 귀찮됨으로써 로맨틱한 성향이 더욱 강하게 형상화되었다. 시제詩題가 주는 의미는 차치하고서도 ‘북국, 막북강, 북랑성’ 등의 이미지가 ‘북조선, 백의인’ 등의 심상과 호응되면서 유랑의 행색이 이국적 분위기로 변모된다. ‘적성을 손가락질하며 빙원벌에서 춤추는 것’이나, 눈이 내리는 진한 우울의 성정은 침울, 몽롱의 이미지와 공통분모로 묶여진다. 이런 공상적, 신비적, 북극적 정서가 즐겨 서식하는 한만국경지대에서 파인은 낭만과 우울로 그가 당면한 불행한 세계에 반응했다. 이러한 자기 감정의 표출 현상을 『국경의 밤』에서 하나의 중요한 모티프를 이루는 ‘밤’의 이미지에 오면 정세는 더욱 가열된다.

아하, 無事히 건넌슬가  
이 한 밤에 남편은  
豆滿江을 탈업시 건너슬가?

『國境의 밤』 서두

여기에는 민족이 당면한 암담한 현실과 찬 겨울 북극적 서정이 결합되고 있다. 국경지대의 긴장이 밤의 적막을 만나 몽환적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차차 신비하고 환상적 포에지로 발전 심화되어 마침내 민족

의 현실을 낭만적 서정으로 전환되는 서사로 대미를 이룬다.

이런 포에지는 1930년대로 오면서도 지속되고 변화된다. 곧 김동환이 낭만적 성정을 여전히 심화 지속시킨다면(『송화강 뱃노래』) 다른 시인의 작품에서는 그 세계가 변화되는 시의식을 허다하게 발견한다. 『이국녀』에 수록된 이서해의 작품 거의가 그러하고,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북방파의 여러 작품은 물론 김소월, 김억의 시에까지 이런 모티프가 나타나다가 시단 전체로 확산된다. 그런 예가 이찬의 『눈밤의 기억』, 조영출의 『국경의 소야곡』과 같은 시이다. 물론 여기서도 북국정서는 외방지향의 성정으로 처리된다. 우선 몇 작품을 통해 이런 점을 살펴보자.

①

새벽 하늘에 구름장 날린다  
에잇, 에잇, 어서 노 저어라 이 배야 가자  
구름만 날리나  
내 맘도 날린다

돌아다 보면은 고국이 천리런가  
에잇, 에잇, 어서 노 저어라 이 배야 가자  
온 길이 천리나  
갈 길은 말리다

『松花江 뱃노래』에서<sup>20)</sup>

②

길—고긴 豆滿江畔에 해는 점으러, 해는 점으러  
나그네의 목메인울음 여울물소리에 고요히 잠기운다  
참외껍질 벗기는 나그네 실음 눈물이 차거워라

...(중략)...

20) 김동환, 『松花江 뱃노래』(■■■삼천리■■■, 1935.3).

江畔에 홀로앉인 내나라 여인내에 방망이 소리 외로웁다  
 푸른 平原 좁은길로 풀짐지고 사람들 무리무리 돌아가고  
 고기잡이 支那人은 낙시대를 걷우고 귀로를 더듬는다  
 밤으로 낮으로 흐르는 물소리는 내형제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으나  
 異域에 잠드는 그들의 머리맡에 물소리 그리우랴?  
 눈물을 뿌리고 건너온 그 고국이 그곳이 그리워서 그리워서

『豆滿江畔에 해는점으리에서』에서<sup>21)</sup>

③

국경에 밤이 짙어 강물이 자네  
 스산한 밤바람에 달빛도 자네

강건너 마을의 개울음도 슬픈 밤  
 나그네 외론 뉘이 눈물에 젖네

남쪽은 내고향 북쪽은 異域  
 국경에 지는 꿈은 스산도 하네

님신고 사라진 배 물새가 울면  
 이별이 눈물이라 수건이 젖네

가을밤 지는 잊은 이 마음이지  
 외로움에 울며불며 강물에 뜨네

국경에 밤이 짙어 총소리 잘 때  
 異域의 아낙네의 꿈결이 곱네

『國境의 小夜曲』 전문<sup>22)</sup>

21) 李瑞海, ■■■異國女■■■(한성도서주식회사, 1937), pp.13-14.

22) 趙靈出, 『國境의 小夜曲』(■■■신여성■■■, 1933.10).

시 ①을 지배하는 시의식은 초탈과 일탈이다. 그리고 그 서정적 자아는 길에 오른 나그네이다. 세상에 대한 미련, 인간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표표히 길을 떠난 사람이다. 모든 걸 버렸으니 원한이나 미련이 있을 수 없다. 긴 수행에서 돌아오는 탈속한 수도자의 모습이라할까. 시어의 톤이 아주 밝고 가볍다. 이제부터 대할 세계에 대한 많은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이 기대감이 천리길 만리길도 무섭지 않게 한다. 서정적 자아는 기대의 세계를 향한 희망으로 부풀어 있다. 그러나 ‘마음을 에잇 에잇’ 날리며 떠나는 행동은 예사롭지 않다. 초탈과 일탈이 시적 변용을 거쳤지만, 『적성을 손가락질하며』나 『국경의 밤』에 나타나던 몽환적 외방지향성과 다르다. 다같이 방랑을 모티프로 하고 있지만 시 ①에는 세상을 포기한 인간사의 내력이 내비친다. 이 작품을 『적성을 손가락질하며』와 『국경의 밤』의 변화refraction의 축에 둘 수 있는 근거는 이런 점 때문이다.

시 ②에서는 외방지향의 방랑기질이 감성과잉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미지의 세계를 접한 시의식이 과거와 만나면서 시상이 감상조로 변하고 말았다. 이것은 서정적 자아가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도망하듯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던 어떤 사정 때문이 아닐까. 나그네가 되고 이역에서 외로워하고, 강가를 홀로 거닐어야 하는 이유가 고국을 떠나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정이 이 시의 서정적 자아를 외방으로 내몰았을까. 이 시에서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하다. 그저 외로워하며 방랑만 하는 서정적 자아는 세상 속에 생을 던져버리고, 세월 위에 삶을 맡겨버린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193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이런 감상과잉의 외방지향의 시가 무더기로 나타났을까. 이설주의 해방전 북방시가 여기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할 듯하다. 이설주의 북방시가 문제적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 ③의 조영출의 『국경의 소야곡』도 이런 작품 중의 하나이다. 시 ③도 시의식이 감상과잉의 외방지향으로 표출되는 점은 시 ②와 같다. 또 표현형식의 평범성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강력함이 우리들의 흥미를 끌어당기고 있는 점도 동일하다. 그리고 이 시의 주제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것은 시상이 3·4조 내지 4·4조의 운율을 타고 세상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까다롭지 않은 형식 때문이다. 그렇지만 낭만적 정조, 한만국경지대에서 경험하는 외방

지향적 모티프가 시를 지배하는 정체를 해석할 단초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시 ③도 시 ①과 동일하게 방랑성이 지속되고 변화되는 어떤 양상만 보여준다. 여기에 대한 답, 다시 말해서 1930년대 말에서부터 무더기로 나타나는 북방지향의 방랑모티프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설주의 북방시가 텍스트로 선정되었다.

#### IV. 流浪과 放浪, 그 北方指向 정서의 正體

이설주의 첫 시집 ■■■들국화■■■와 두 번째 시집 ■■■방랑기■■■에 수록된 작품 대부분이 이 시인이 북만지대를 방랑하던 체험을 모티프로 하고 있다. 우선 시집의 이름이 된 두 작품을 찬찬히 음미해 보자

물래방아 소리 들리는 낮으막한 두던에  
외로이 핀 들 菊花야!  
너는 언제나 古鄕이 없고나.

너와 함께 우는 이슬비  
너를 어루만져 줌은 가는 실바람

길 잃은 망아지 엄매 우는  
뗏구비 돌아 나간 길우에

멀리 黃昏이 묻어 들면  
哀愁의 구름이 네 무덤을 덮어-

『들국화』 전문<sup>23)</sup>

송가리 黃土물에 어름이 풀리우면  
半島 南쪽 고깃배 실은 洛東江이 情이 들고

23) 이설주, ■■■들국화■■■(民鼓社, 1947, 大邱), p.63.

山마을에 黃昏이 밀려드는 저녁답이면  
호롱불 가물거리는 뚫어진 봉창이 서러웠다

소소리바람 불어 눈 날리는 거리를 길 잃은 손이 되어  
땃마디 주서모은 서투른 말에 姑娘이 웃고 가고

行商때 드나드는 바쁜 나루에 물새가 울면  
외짝 마음은 노상 故鄉하늘에 구름을 좇곤 했다

『放浪記』 전문<sup>24)</sup>

위의 두 시를 지배하는 시의식은 다 같이 상실감이다. 『들국화』의 들국화는 고향이 없고, 『방랑기』의 서정적 자아도 고향을 잃어버린 나그네이다. 들국화는 찬 서리 내리는 산야 언덕에 홀로 피어있고, 『방랑기』의 서정적 자아는 바람불고 눈발 날리는 황혼의 거리를 헤메인다. 마음은 늘 고향하늘을 쫓고, 산 마을 저녁 무렵 호롱불이 켜지던 방을 생각하지만 몸은 송가리松花江의 황톳물을 보며 고향의 낙동강을 떠올리며 흘러 다녀야 하는 방랑객 신세이다. 들국화, 고향, 바람, 길, 구름, 황혼, 나루 이런 어휘들이 사라지고, 소멸하는 시의식과 호응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시의 서사는 다 같이 여행기로 되어 있는 형태도 동일하다.

한편 이 두 시에는 현실에서 오는 긴장감이 없다. 현실적으로는 떠도는 몸이지만 고향은 행복했던 과거, 과거에 대한 낭만적 향수로 인식되어 있다. 물레방아, 호롱불, 그리고 향토 언덕의 들국화까지 노스텔지어의 대상으로 소환하고 이를 통해 현실의 쓸쓸함을 나그네의 광풍제월기로 육화하고 있다. 상처 받은 흔적도 원한에 찬 어떤 기도도 없다. 그러나 이런 점은 이 시의 외연外延이다.

이 두 시의 內包는 방랑의 페이소스(pathos, 哀愁, 悲哀)이다. 방랑의 페이소스는 ‘행복했던 과거’ 형태로 과거를 끊임없이 환기하여 현재의 불행을 잊으려

24) 이설주, ■■■방랑기■■■(啓蒙社, 1948, 大邱), pp.18-19.

한다. 이 페이스스는 그 자체로 과거지향적이다. 방랑의 페이스스는 과거에 대한 노스텔지어와 현재에 대한 부정이라는 이중적 운동을 통해 과거를 끝없이 지연시키려한다. 그래서 이 페이스스 속에서의 시적 자아의 현재는 아무런 의미도 찾아낼 수 없는 텅빈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적 자아는 끊임 없이 무언가를 찾아 나서게 된다. 현재를 부정하는 삶, 이것이 방랑의 페이스스가 구성하는 삶이다. 방랑의 페이스스가 구성하는 미화된 이러한 과거는 결국 현재의 소거消去라는 시의식으로 귀착된다. 과거와 현재의 왕복운동을 해보지만, 어떤 미래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설주의 다른 작품에도 방랑의 페이스스가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엄혹한 현실이 시대상과 호응되면서 형상화된다.

눈보라 사나워 야원 불을 꺾고  
 빙판에 말굽이 얼어붙는  
 영하 50도 寒北萬里에  
 유랑의 무리가 山東若力(쿠리) 처럼 흘러간다

일본서 또 무슨 개척단이 새로 入植한대서  
 고국을 모르는 백의동포들이  
 할아버지때 이주해서 삼십년이나 살았다는  
 南滿 어느 파사로운 촌락을 쫓겨  
 북으로 북으로 흘러가는 무리란다

밀가루떡 한 조각이면 그만이고  
 도야지 족 한쪽만 있으면 생일잔치라는  
 흙에서 살아 흙을 아는 사람들이다  
 고국은 몰라도 한 평 농토만 있으면  
 내 고향이라 믿는 백성

고국을 몰라도  
 고향을 의지하고 사는 농민  
 눈보라 사나워 야원 뿔을 꺾고

빙판에 말굽이 얼어붙는  
 영하 50도 寒北萬里를  
 몇차례 눈물을 흘치고  
 또 다음 고향이 바뀌려한다.<sup>25)</sup>

이 『이민』은 같은 시집의 『이양移秧』과 함께 당시, 만주의 이주농민이 생활 고에 시달리던 궁핍한 삶의 사정을 사실적으로 문제삼고 있다.

흔히 1920년대 문학을 일컬어 ‘궁핍의 문학’이라고 말한다. 궁핍한 시대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문학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20년대의 궁핍은 1930년대 말에서 40년대 초에 걸친 궁핍만큼 심각하지 않다. 우리가 잘 알 듯이 1930년대 말기부터 한반도는 일제가 준비하던 전쟁의 보급창고로 바뀌고 있었고, 만주 역시 그러한 계획아래 농민을 이주시키거나 만주는 모두 쌀 밭이라며 이주를 획책하던 시기였다.

우리 문학에 있어서의 궁핍의 문제는 주로 농민문학의 주요 테마였다. 가령 반평생을 농민소설 창작에 바친 이무영이 1940년 4월에 발표한 『흙의 노예』에는 아들의 논 살 돈이 약값으로 들어갈까 봐 양젓물을 먹고 자살하는 김노인이 나오고, 1944년 간도間島에서 출판된 안수길의 창작집 ■■■북원北原■■■(예문당藝文堂)에 수록된 여러 단편에는 가난을 면하기 위해 딸을 중국인 지주에게 팔거나 자기 논을 지키기 위해 총알이 날아오는 대도 벼포기를 안고 논바닥에 들어 눕는 사건이 벌어진다. 시의 경우 이용악의 『전라도 가시내』 서정주의 『만주에서』 오장환의 『북방의 길』 이찬의 여러 북방시편이 모두 이런 궁핍을 문제삼고 있는 명편들이다. 또 백석이 1939년에 조선일보에 발표한 『팔원八院』에 나오는 손잔등이 밭고랑처럼 터진 계집아이도 입하나 덜리고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보개를 해야했고, 조지훈까지도 ‘내가 간 뒤에는 면서기面書記가 새하얀 여름모자를 쓰고 산밑 주막에서 구장區長과 막걸리를 마실게고 나는 서월 가는 기차 속에서 고향을 잃은 슬픔에 차창車窓에 기대어 눈을 감을 것이니 이 령嶺을 넘는 날 나에게는 낡은 추렁크와 흰구름 밖에는 아무도 따라오질 않을 것이다’<sup>26)</sup>라며 객지로 떠나야 하

25) 이설주, ■■■들국화■■■(민고사, 1947), 『移民』 전문, pp.23-24.

는 시의 서사도 1940년대 전후의 심각한 상황을 문제삼는 작품이다.

1940년대 무렵, 한국문단 한편에 엄존하던 이상과 같은 기류를 전제할 때 이설주가 『이민』과 『이양』에서 문제삼고 있는 상실과 이별의 폐이소스는 궁핍의 서사를 통해 결핍에 대한 두려움에서 탈출하고,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강화의 대응방식 또는 현재를 검증하려는 현실주의 성격에 다름 아니다. 이설주의 북방시는 이런 점에서 한시대의 큰 흐름과 함께 간다.

다른 작품을 통해서도 이런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논증할 수 있다.

어너누가 기대린다고  
故鄉도 버리고 찾아 온 滿洲  
어인고 참새 입알만한  
네 죄그만 창자를 못채워주나뇨

渺茫한 들이 길게길게 뻗어 있어도  
네몸 하나를 뉘어줄곳 없구나  
내 팔뚝이 거센 波濤처럼 역세건만  
떠나는 너를 잡을길이 없었드라

順伊야  
너는 새땅을 찾아 아비와 어미를 따라  
다시 멀리 北支로 가버리었지

바람도 자고 별도 조을고  
참새 보금자리에 꿈이 깊었는데  
憂鬱한 沈默과 廢船의 輓歌가 底流하는 이房안이어

내마음 기름같은 孤獨을 안고  
이밤에 萬里長城을 넘고 白河를 건너  
雲煙이 漠漠한 北녘 하늘로 向했도다

26) 趙芝薰, 『남국기행수첩 嶺』, 동아일보, 1940.5.7.

毒蛇같은 식기가 잠겨있는 濁流에  
 櫓를 잃은 가엸은 順伊야  
 萬壽山 허리에 행여 高粱을 심었거든  
 가을 바람에 네 기쁜 노래를 부쳐다오

『移住哀』 전문<sup>27)</sup>

여성 화자 ‘순이’를 부르는 정조가 이용악의 『전라도 가시내』와 유사하고, 그 처연한 정조가 미당의 『밤이 깊으면』의 숙淑이를 연상시킨다. 백하, 이도백 하 그 아득한 북방 지대에는 아직도 조선인들이 야만의 상태로 살아가는데, 이 시의 서정적 자아는 60여년전 한 알의 풀씨앗처럼 그 땅으로 흘러가 순이를 부르고 있다. 참새 입만한 배도 못 채우는 가난함, 만가輓歌가 흐르는 듯한 허물어진 방안에서 이 시의 퍼스나는 회한과 애수에 몸서리를 친다. 북지로 떠나는 순이를 잡지 못하고, 자신도 구름과 연기만 자욱한 낯선 북쪽으로 살 길 찾아 왔단다. 처연함과 깊은 페이스스의 시상이 여타 시인들의 마도강체함의 그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설주 시인은 ‘니혼대학日本大學 재학중 사상범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후 만주로 가서 해방전까지 만주 중국대륙을 방랑하다가 광복후 귀국하여 교직에 있으면서 강한 현실참여적인 작품을 주로 썼다.’<sup>28)</sup> ■■방랑기■■의 발문跋文을 쓴 영화배우 춘사春史 나운규羅雲奎는 20여년의 세월을 만주 등지에서 방랑을 하고 돌아온 시인이라는 내용의 말을 했다. 시집의 발문을 연극·영화인이 쓴 것은 희귀한 일이다. 그러나 춘사春史는 보통 영화인이 아니다. 일찍이 만주를 방랑하며 상방喪邦의 슬픔을 달래다가 독립군이 되어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 했던 애국 청년이었다. 이설주의 이력도 크게 보면 같고, 이설주도 한 때 연극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연유가 나운규로 하여금 이런 발문을 쓰게 했을 것이다.<sup>29)</sup>

27) 이설주, ■■방랑기■■(계몽사, 1948, 대구), pp.94-97.

28) 따님 이일향은 어린시절 여차하면 형사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가택수색을 했고, 때로는 천장까지 뒤지는 통에 온 식구가 진저리를 쳤으며, 그래서 시를 쓰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고 회고했다.

1920년대 말의 민족 정서의 한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영화 <아리랑>은 춘사 나운규가 감독을 했고, 주연을 했다. 우리가 잘 알 듯이 이 영화는 일인 앞잡이 지주가 농민을 수탈하고, 순진한 처녀까지 겁탈하려 하다가 주인공의 낮에 절려 죽임을 당한다는 서사로 되어있다.

이런 점에서 이설주의 ■■■방랑기■■■의 발문을 쓴 나운규의 글은 이 시인의 시적 배경이 어떠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시인이 그곳에서 어떤 성향의 활동을 했던 가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준다. 필자도 생전에 이런 말을 이 시인으로부터 직접들은 바 있다. 그러니까 『이주애』는 바로 시인 자신의 이런 북방지대의 체험기가 바탕이 된 작품이다.

## V. 마무리

시인 이설주는 해방기 대구시단을 이끈 시인이다. ■■■들국화■■■(1947) ■■■세기의 거화世紀의 炬火■■■(1947) ■■■방랑기放浪記■■■(1948) 등으로 대구 문단에 활기를 주었고, 한국전쟁기에는 김용호金容浩와 1953년도 ■■■연간시집■■■ ■■■현대시인선집■■■ 상·하 두 권을 공편으로 간행했고, 1954년도 ■■■연간시집■■■은 유치환柳致環과 공편했다. 한국전쟁기에 서울의 많은 문인들이 대구로 피란을 왔던 사정을 감안하면 이설주의 이런 문단활동은 짧지만 한국문단의 한 시기를 대표한 역할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 4권의 엔솔로지는 총 2500쪽에 달하는 책으로 1950년대 초기 한국시단을 조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이런 점에서 이설주는 이와 상응하는 문학사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들국화■■■와 ■■■방랑기■■■는 북방과의 외방지향의 정서가 노스텔지어로 육화되고 있는 시집이다. 한편 이 두 시집을 지배하고 있는 시의식은 이향離鄉과 방랑放浪의 페이소스인데, 이것이 이설주의 시에서는 과거에 대한 노스텔지어와 현재에 대한 부정이라는 이중적 운동으로 서정적 자아를 텅빈공

29) 이설주, 자전적 시화집 ■■■文學的 鄉愁■■■(甲寅出版社, 1999), ‘배우와 댄서’항 참조.

간으로 내모는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방랑의 페이스스가 구성하는 미화 된 과거는 결국 현재의 消去라는 시의식으로 귀착했다.

이런 점은 1930년대말기부터 한국문단에 나타난 북방파 시인들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시의식이지만 유독 이설주 시에서 집중표현으로 성취를 거두었다. 곧 시의식이 외연으로만 보면 감상 과잉의 외방지향으로 표출되지만, 그 내포는 과거를 끊임없이 환기함으로써 현재의 불행을 잊으려는 한 시대상으로 응축되었다. 따라서 이설주의 이런 성향은 북방파 시문학의 주요특징의 하나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설주의 초기시에 나타나는 다른 하나의 정체正體는 일제강점기 이땅의 민초들이 당면했던 커다란 악재, 그러니까 민족만 있고 국가는 없는 상실감이 서사화되는 시의식이다. 이것 역시 북방파 시인들의 특성이지만 이설주의 경우는 시인의 삶 자체를 지배한 요인이 되었다. 초기에는 이런 점이 이 시인을 고독한 방랑객으로 내모는 동인이 되었고, 후기로 오면서는 문단 밖에서 혼자 참여를 시도하다가 지방문인으로 소외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일본문단을 통해 시인이 되고 주로 대구大邱라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도 한국문단을 외면했던 이설주는 자신의 그런 문학적 위치와는 다르게 왕성한 창작활동을 했고, 그 결과 많은 시집을 출간했다. 이런 점이 그의 문학행위를 마침내 고독한 존재로 머물게 하였다. 시인 이설주의 결정적 한계이다. 문학적 자존을 끝까지 검증없이 지켜나간 자존심이 인간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초기문단활동은 이런 한계 이전에 놓인 한국문단의 주요 멤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들국화■■■와 ■■■방랑기■■■의 시절이 그러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이설주의 초기시, 곧 ■■■들국화■■■, ■■■방랑기■■■, ■■■세기의 거화■■■에 수록된 대체적인 성향은 불행한 이 나라 사람들이 저마다의 가슴에 안고 살았던 한과 설움을 혈연의 정의로 형상화한 낭만적 정서가 지배하는 서정시이다.

둘째, 서정시라고 하지만 그 내포는 민족공동체의 슬픈 운명을 가장 인간적인 정서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 참여적 저항시의 성격을 지닌다.

셋째, 이설주의 초기시는 1930년대 말 1940년대 초 한국시단에 대거 등장했던 북방파의 시의식과 닮아 있다는 점에서 그 시사적 의의가 부여되어야 한다.

넷째, 이설주의 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방랑 기질과 허무주의, 애상은 그가 살았던 시대와 사회에 대한 정면대응을 우회한 시적 반응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그의 감상은 너와 나를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시키데서 오는 민족문학적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주제어** : 향수, 북방, 외방지향, 현실참여, 민족, 지방, 방랑. (Bohemiantemper. Pathos, National Identity, Northbound.)

## 참고 문헌

### — 기본자료

- 이설주, ■■■들국화■■■(民鼓社, 1947, 大邱)  
 이설주, ■■■방랑기■■■(啓蒙社, 1948, 大邱)  
 이설주, 自傳的 詩話集 ■■■文學的 鄉愁■■■(甲寅出版社, 1999)

### — 단행본 및 논문

- 김동환, 『松花江 뱃노래』(■■■삼천리■■■, 1935.3)  
 大村益夫의 ■■■운동주와 한국문학■■■(소명출판, 2001)  
 오양호, 『移民文學論』(영남어문학 3집, 1976)  
 오양호, ■■■일제강점기 만주조선인문학연구■■■(문예출판사, 1996)  
 오양호, ■■■일제강점기 만주조선인문학연구■■■(문예출판사, 1996)  
 오양호, ■■■한국문학과 간도■■■(문예출판사, 1988)  
 李瑞海, ■■■異國女■■■(한성도서주식회사, 1937)  
 趙靈出, 『國境의 小夜曲』(■■■신여성■■■, 1933.10)  
 趙芝薰, 『남국기행수첩 嶺』(동아일보, 1940.5.7)

※ 이 논문은 2003년 10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3년 11월 2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3년 11월 29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